

제12장 사역 중단과 별세

강명석 선교사는 심혈(心血)을 기울여 교회개척, 전도자 양성, 설립된 교회들을 돌보는 순회 선교사역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던 1940년 어느 날(1940.6. 동방교회 집회 시작 이후) 말도 아닌 유언비어(流言蜚語)를 듣게 된다. 그 유언비어는 어느 감리교회 목사가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도자들을 거짓으로 선동(煽動)하므로 퍼져나간 소문을 말한다.

“미국교회에서 강명석 목사에게 보내오는 선교비는 신학교를 설립하여 교역자를 양성하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강 목사는 ‘미국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선교비를 사용하라고 자신에게 보내온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신학교설립에 대한 계획도 없고, 신학교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교회사』, 51. 참조]

이때 강명석 선교사는 감리교회 목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자들을 만났다. 그는 그들에게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아

주 솔직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강명석의 간곡(懇曲)하게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리교회 목사의 말을 더 믿는 일부 전도자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태(事態)로 확대되었다. 급기야 그들은 말을 만들어 충격적(衝擊的)인 소문까지 내기 시작하였다.

“미국교회에서는 그동안 조선에 신학교를 설립하여 교역자를 양성하는 교육 선교비에도 사용하라고 강명석 목사에게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강 목사는 신학교를 설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교회에서 보내오는 선교비를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유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교회사』, 51. 참조]

강명석 선교사는 “선교비를 유용한다”라는 소문, 즉 “공금(公金)을 횡령(橫領)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며칠간 기도하고 고민하다 소문의 장본인을 만나러 갔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뜻밖에도 두 사람은 심한 언쟁(言爭)을 하고 말았다. 이때 충격적인 폭언(暴言)까지 들어야 했고, 자신의 진실을 알릴 방법을 찾지도 못한 채 집에 돌아와 쓰러져 버렸다. 이명신 사모가 어떻게 된 일인

지를 몰라 질문을 했지만, 그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 말문을 닫아버렸다. [김세복, 『교회사』, 51.]

결국, 강명석 선교사는 충격으로 인해 대뇌(大腦, 큰 골)의 손상이 생겨 언어표현에 장애(障礙)를 발생시키는 병적 증상인 실어증[失語症, aphasia]이 그를 사로잡아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말을 산출하는 영역이 손상되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말하기가 불편해 말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나 가벼운 활동은 가능했고, 가족들과의 의사소통도 불편하지만, 가능했다. 그렇지만 공적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태였기에 그의 가족은 울산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때부터 4년 정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김세복, 『교회사』, 51.] 그리고 그는 침묵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 주여! 저들은 제 마음을 너무나 몰라줍니다. 그러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는 다투는 것이 싫어서 저 혼자 말문을 닫고 모든 것을 차단(遮斷)했습니다. 저를 모함한 자들, 헛소문을 퍼트리는 자들이 밋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들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모든 것을 안고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결국, 강명석 선교사는 분쟁보다는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하는 동역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상처받은 괴로움으로 가슴앓이를 하였다. 이렇게 실어증으로 4년 정도 두문불출하며 투병 생활을 하던 중 1944년 5월 28일(주일) “내가 죽은 후에 기회가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 그룹)와 교제를 회복하라”라는 유언(遺言)을 남기고 44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夭折)하고 말았다. [김세복, 『교회사』, 51.] 그런데 왜? 강명석의 별세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게 되었을까?

첫째, 동석기 선교사의 견해이다. 그는 1946년에 쓴 영문 편지에서 “그러나 나는 그가(강명석 선교사) 1940년에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갔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 [But I am very sorry that he had gone to his permanent home in 1940.]라고 ‘1940년’에 별세했다고 하였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81.] 여기서 이상한 점은 이명신 사모가 1941년에 편지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동석기는 왜? 1946년에 쓴 편지에서 “강명석 형제는 1941년이 아닌 1940년에 별세했다”라고 했을까?

둘째, 강서대학교 전인수 교수의 견해이다. 그는 “S. K. Dong, *The Harvest Field*”의 내용을 번역하여 게재하면서 “몇 년 전에 강문석(姜文錫, 1900-1941) 형제

가 세웠다”라고 ()안에 출생과 별세 시기를 삽입하여 ‘1941년’이라고 했다. [KC대학교출판부(2015), 『동석기 전도자의 선교편지』, 『교수논문집』 15집, 206.] 여기서 전인수가 1941년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이명신 사모가 미국에 보낸 편지”라고 했다. 이후 필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강명석 선교사 부인 이름으로 미국에 보냈다는 편지를 찾았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 순간 눈을 의심했다. 왜냐하면, 우연의 일치처럼 별세한 날짜(5.28.)가 일치했기에 지금까지 주장해온 1944년의 견해가 흔들렸음을 고백한다.

“친애하는 친구들: 나는 나의 남편이며 서울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강문석(강명석) 목사가 5월 28일에 울산에서 별세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이 슬픔입니다. 그는 6월 2일 남조선(남한)의 마산에 묻혔습니다. 그는 계속된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한 어머니와 어린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1941년 6월 16일 조선 서울에서 강문석(강명석) 부인 [My Dear Friends: I grieve to announce the death of my husband, Moonsuck Kang, the minister of the Church of Christ in Seoul, on the 28th of May, at Ulsan. He was buried on the 2d of June at Masan, South

Korea. He confessed Christ in his continued illness and death. He has one mother and two little daughters. Trusting you pray for us, Yours sincerely, Mrs. Moonsuck Kang., Seoul, Korea, June 16, 1941.] [Gospel Advocate, July 17, 1941, page 692.]

위 편지 외에도 KCI(강서대학교 전신) 박선흠 교수는 『참빛』(1968.2.)지에 기고한 “『한국교회 환원운동사(2)』, 20.”에서 “1941년 5월 강문석(강명석) 형제는 41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세복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사』(1969)가 출판될 때 박선흠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KCC, 현 강서대학교) 교수였다. 그런데도 그는 김세복의 “1944년 별세”라는 견해에 침묵했었다. 아무튼, 필자는 “1944년 별세”라는 견해를 지금까지 주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오류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다른 자료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기에 침묵했었다.

셋째, “강명석 선교사는 1944년 5월 28일(주일) 별세했다”라는 견해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견해이다. 김세복은 『교회사』를 출판하면서 이명신 사모를 직접 만나 인터뷰(interview)를 녹취(錄取)하여 구술 생애사(oral life history)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었다. [이명신은 1993년 7월 10일(토) 85세에 별세했다] 그리고 51쪽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필자가 간과(看過)했었음을 시인한다.

“1944년 5월 28일(주일) 첫 번 복음을 전하던 울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의 장모 전란 자매님의 품에 안기여 세상에서 눈을 감고 저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다.” [김세복, 『교회사』, 51.]

여기서 강명석 선교사 유가족(遺家族)이 부인하고 있는 출처불명(出處不明)의 “1941년에 보냈다는 이명신 사모의 영문 편지”로 인해 그 견해를 박선흠 교수가 가장 먼저 언급했고, 전인수 교수가 지지하고 있기에 이 편지의 사실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상황과 그 편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즘으로 말해서 ‘가짜 뉴스’라는 실마리를 몇 가지 찾을 수 있다.

첫째, 1940년 6월 이후 강명석 선교사는 Church of Christ 그룹에서 일방적으로 교제를 단절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모함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의 방해로 인하여 강명석의 가족들은 미국과의 모든 관계나 서신 왕래마저도 끊어진 상태였다. [김세복, 『교회사』, 51.] 그런데 이상한 점은 Christian Church 그룹의 성낙소 목사와는 교제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기간에 성낙소 목사는 울산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

하기도 하고 침례식도 강명석을 대신하여 집례 하였으며, 강명석이 별세하자 장례식까지 집례 했다고 한다.

“강문석(강명석) 형제 생시에 성 목사님을 청하여 각 지방 교회 사경회와 전도 집회할 때에 우리 울산읍에도 오셔서 사경회와 전도 집회로 인해 정인구 노인과 기타 여러 사람에게 침례를 주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수개월[數箇月, 두서너 달 혹은 몇 달] 후에 강 목사(강명석)의 장례식을 성 목사님이 주례하고 신앙상 견고히 하셨습니다.” 『성낙소 목사 자서전(영인본)』, 87~88, (현대어 해설), 172.]

둘째, “이명신 사모는 영문 편지를 쓸 정도의 실력이 없었다”라고 강명석 선교사의 유복자 강경태 박사는 주장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영문 편지 쓸 수 있는 자를 찾아 작성한 후 별세한 지 18일이 지난 시점에 편지를 보내는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또한, Church of Christ 그룹에서 미국과의 모든 서신 왕래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를 받는 상태였는데, 동석기 선교사라면 몰라도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 편지가 작성되었으며 누가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전달하였을까?

셋째, 강명석 선교사는 자신과 당시 전도자들을 소

개할 때 영어로 ‘minister’가 아닌 ‘evangelist’를 즐겨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알고 있었던 이명신 사모가 직·간접적으로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evangelist’로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편지에는 ‘minister’만을 표기했을 뿐 ‘evangelist’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넷째, 다음과 같은 영문 표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전의 편지가 아니라 해방 후 (1946.8.10. 이후)에 작성한 편지로 여겨진다. (1) 당시 조선의 영문 표기는 ‘Korea’였는데, 편지에는 1945년 해방 후 표기인 ‘South Korea’(남한)를 사용한 점이다. (2) 일제강점기 조선 수도는 경성[京城, Kyungsung]이었고, 서울(Seoul)은 해방 1년 후인 1946년 8월 10일(토) 자로 변경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편지에는 당시 명칭인 “경성”이 아닌 해방 후 명칭인 “서울”을 사용한 점이다. (3) 강명석 선교사는 경성을 떠나 울산교회 목사관에서 지내다가 별세했는데, 편지 보낸 장소를 “울산이 아닌 서울(경성)”이라고 한 점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강명석 선교사의 부인이 썼다고 주장하는 편지는 누군가 후대에 소문만 듣고서 쓴 편지로 보인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강명석은 1941년에 별세했다”라는 견해는 사람이 만들어 낸 역사적 오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명석은 1944년에 별세했다”라는 견해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신한다.

첫 번째, 전술한 바와 같이 김세복의 『교회사』에 있는 「강명석 씨의 초기활동」(50~54.)은 이명신 사모가 생전에 김세복에게 증언한 구술 생애사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살아있는 그 자체가 증인인 강명석의 유복자 강경태 박사의 출생 시기가 “1941년이나 1942년이 아니라 강명석의 별세 후인 1944년 8월 23일(수)”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강명석의 장모 전란 권사가 외손자인 강경태에게 “너의 아버지는 1944년에 별세했다”라는 얘기를 다음과 같이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무남독녀 어머니를 외할머니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종, 아버님과 인연을 맺게 하시고 흡족해하셨단다.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애지중지하셨던, 의지하셨던 그 사위가 당신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다. 외할아버님(李永守)께서 돌아가신 지 4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다. [필자 주, 이영수 외할아버지는 1940.10.25.(금) 별세하였다.] 부산의 직장(초등학교)으로 나간 딸을 대신하여 남겨진 손자를 울산에서 키우셨다.” [필자 주, 이명신 사모는 1946.~1969.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강경태

(2009), 『강경태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6.]

전란 권사가 외손자인 강경태 박사에게 들려준 애기의 핵심은 “외할아버지는 1940년 10월 25일에 별세하였고, 그 후 4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44년 5월 28일에 아버지께서 별세하였다.”라고 전해준 것이다. 여기서 강경태는 “외할아버지의 별세 소문이 아버지의 별세 소식으로 동석기 선교사에게 전해졌기에 1940년에 강명석 형제가 별세했다”라고 회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강경태는 그뿐만 아니라 “1941년에 아버지께서 별세했다”라는 주장까지 가짜뉴스처럼 전파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수정 보완하여 바로 잡은 강명석 선교사의 생애를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교회사 속의 환원 운동의 선구자의 한사람인 강명석 선교사는 1900년 10월 13일(토) 경상남도 밀양군 양효리에서 태어나 1944년 5월 28일(주일) 울산(蔚山)에서 44세에 요절(夭折)하였다. 그는 생모 신재선과 장모 전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이명신과 어린 두 딸(9세, 4세)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천국으로 떠났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는 Christian Church 그룹의 성낙소 목사의 집례(執禮)로 장례식을 치렀으며, 그가 하나

님 곁으로 떠난 지 3개월 후인 8월 23일(수) 유복자 강경태가 태어났다.”

강명석 선교사를 쓰러지게 만든 자들로 인해 미국교회와 강명석의 가족과는 모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동석기 선교사를 통해 그의 별세 소식을 접한 미국교회 형제자매들이 위로의 편지들을 보냈지만, 강명석을 쓰러지게 만든 자들은 그 편지들을 없애버리거나 전해주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강명석의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싶어 찾아온 미국교회 형제자매들마저도 궂방을 놓아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 결과 그가 설립한 교회들 가운데 울산교회를 제외한 7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세복, 『교회사』, 51.]

여기서 Church of Christ 그룹의 대표인 동석기 선교사는 강명석 선교사가 당하는 고통, 투병 생활, 연락 두절, 별세, 장례식 등의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수수방관(袖手傍觀) 하였을까? 아니면 개입하였을까? 강명석을 만나러 왔을까? 강명석의 죽음을 확인하고, 조문했을까? Christian Church 그룹 성낙소 목사가 집례한 장례식 때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이러한 의문이 필자에게 왜?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